

제2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

1. 제2터미널 개요

- ❖ 연간 5,400만 명을 수용하는 제1터미널에 이어 2018년 1월 18일 제2터미널을 개장함.
- ❖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의 포화상태를 예측하여, 2009년 3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음.
 - ▶ 3단계 사업은 제2터미널뿐만 아니라 연결철도·도로, 계류장, 주차장 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임.
 - ▶ 제2터미널은 인해 연간 1,800만 명이 수용 가능한 시설로, 이로 인해 인천공항은 연간 총 7,200만 명의 여객을 수용 가능하게 되었음.

〈표 5-7〉 인천공항 3단계 공사 개요

구분	1, 2단계	3단계	합계	
여객터미널	662천㎡(5,400만 명) (T1 ↔ 탑승동A)	384천㎡(1,800만 명) (T2 일부)	1,046천㎡ (7,200만 명)	
화물터미널	258천㎡(450만 톤)	27천㎡(130만 톤)	285천㎡ (580만 톤)	
교통센터	250천㎡	135천㎡	-	
IAT	0.9km 복선셔틀	1.5km 복선셔틀	-	
공항철도	서울역↔T1 61km	T1↔T2 연결철도 6.4km	67.4km	
계류장	여객	여객 108개소	여객 56개소	여객 164개소
	화물	화물 36개소	36개소 화물 21개소	화물 57개소
총사업비 (사업기간)	1단계:5조6,323억 원('92~'00) 2단계:2조9,688억 원('02~'08)	4조9,303억 원 ('09~'17)	-	

자료 : 인천국제공항공사

2. 제2터미널의 특징

- ❖ 제2터미널의 경우, 제1터미널과 비교해 출국장 입국장, 보안검색장 대기구역이 약 3배 확대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.
- ❖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 출국심사 지역으로 연결되는 입구는 동·서 2곳으로 되어 있음.
 - ▶ 기존에 제1터미널은 출국심사 지역으로 연결되는 입구가 총 4곳이었으나, 특정 지역에만 여객이 몰려 오히려 혼잡이 발생하였음.
- ❖ 셀프체크인 기기가 이용객 1만 명당 13.2대 설치돼 1만 명당 7.3대 설치된 제1터미널보다 많고, 스스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 셀프백드롭 기기도 이용객 1만 명당 6.8대로 1터미널의 약 8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음.
- ❖ 제1터미널에선 수하물 안에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으면 열어서 함께 점검하기 위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3~5분 대기해야 하지만, 제2터미널의 경우 출국 절차를 다 마친 이후 면세점 구역에서 수하물을 열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지 않아도 됨.
- ❖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이용객 1만 명당 14대가 설치됨.
- ❖ 보안검색장에는 전신스캐너(원형검색기) 24대가 설치돼 보안검색 요원들이 일일이 몸수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시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3. 제2터미널 이용항공사 및 유의점

- ❖ 대한항공을 비롯해 델타항공, 에어프랑스,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제2터미널로 가야하며,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저비용항공사(LCC) 등 나머지 86개 항공사는 기존 제1터미널에서 탑승하면 됨.
- ❖ 2개 항공사가 1개의 항공기를 같이 운항하는 공동운항(코드셰어·Code Share)

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, 탑승권 판매 항공사와 항공기 운항 항공사가 달라 주의가 필요함.

▶ 특히, 진에어가 운항하는 대한항공 공동운항편을 구매한 승객은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제1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공동운항편 확인이 필요함.

▶ 대한항공과 진에어 공동운항 노선은 인천-클락, 인천-코타키나발루, 인천-사이판, 인천-다낭, 인천-기타큐슈, 부산-세부, 부산-다낭, 부산-기타큐슈 등 21개 노선임.

❖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, 전자항공권에 터미널 정보를 빨간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하고 있으며, 항공사가 출발 전(1일 전과 3시간 전) 개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이용 터미널을 안내하고 있음.

4. 제2터미널 접근 방법

❖ 제2터미널은 제1터미널과 별도의 교통센터(철도·버스 이용 시설)가 위치하고 있으며, 오히려 제1터미널보다 터미널과 교통센터 간 거리가 감소하여 이동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예상됨.

▶ 제1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 시에는 터미널 밖에서 기다려야 했지만, 제2터미널의 경우 교통센터 지하 1층 실내에 버스터미널을 조성했기 때문에 내부 대합실에서 기다릴 수 있어 악천후, 무더위 등에 상관없이 터미널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음.

▶ 공항철도와 리무진버스 모두 제1터미널에서 먼저 정차한 뒤,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함.

❖ 승용차로 갈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된 영종대교를 이용하면 공항입구 분기점(JCT)에서 운서나들목(IC)으로,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공항신도시 분기점(JCT)에서 운서나들목을 지나 제2터미널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함.

▶ 두 방향 모두 약 11분이 소요되며, 만약 분기점을 지나치면 1·2터미널 연결도

로를 통해 원하는 터미널로 이동해야 함.



〈그림 5-15〉 승용차로 제2여객터미널 가는 방법

- ❖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승객이나, 터미널 간 이동을 원하는 승객이 있다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음.
 - ▶ 오전 4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직통 순환버스 11대를 5분 간격으로 하루 229회(편도) 운행함.
 - ▶ 제11터미널은 3층 중앙 8번 출구 밖에서, 2터미널은 3층 중앙 4·5번 출구 사이에서 탈 수 있음.
- ❖ 다만,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로 갈 때는 15km(소요시간 18분), 거꾸로 2터미널에서 1터미널로 올 때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을 거쳐 18km(소요시간 22분)가 걸리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출발해야 함.